

SPORTS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우상혁, 내일 시즌 첫 '실외경기'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표선발전

우상혁(28·용인시청)이 이 시즌 첫 번째 실외 경기를 국내에서 치른다.

대한육상연맹은 21~23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최종 선발전대회를 연다.

우상혁이 출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경기는 대회 둘째 날인 22일 오전 11시에 시작한다.

올해 우상혁은 2월 9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대회에서 시즌 첫 점프를 2m31로 우승했고, 같은 달 19일에는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에서도 2m28로 정상에 올랐다.

3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2025 세계실내 선수권에서도 2m31로 우승하며 올해 치른 3개 실내 국제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기본 좋게 실내 시즌을 마친 우상혁은 진천선수촌에서 실외 시즌 개막을 준비했다.

올해 우상혁은 중국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한국 구미 아시아선수권, 일본 도쿄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목표로 정했다.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다.

5월 27일 구미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선수권에서는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우상혁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1년 만에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치른다"며 "국내 팬들 앞에서 뛰는 건 즐거운 일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도 덜 새 없이 훈련하는 데에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SG 이강인, 복귀전서 73분 활약

팀을 2-1 승리... '무패 우승' 도전

지난달 축구대표팀 A매치에서 발목을 다쳤던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24)이 부상을 털어내고 6경기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해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PSG는 2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리아브르와의 2024-2025 리그1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지난 6일 정규리그 28라운드에서 조기 우승을 확정지은 PSG는 개막 29경기 연속 무패(24승 5무 5승점 77)를 이어가며 '무패 우승'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다.

특히 PSG의 이강인은 지난 3월 20일 오만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 도중 왼쪽 발목을 다친 이후 한 달 만에 출전해 73분 동안 활약하며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렸다.

이강인은 A매치 발목 부상의 여파로 공식전 5경기(정규리그 2경기·UCL 2경기·프랑스컵 1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6경기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수확하지 못했지만, 3차례 키패스와 97%의 패스 성공률, 7차례 크로스를 기록하며 소파스코어로부터 수비수 루카스 베랄두와 함께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 7.6을 받았다.

전반 8분 만에 데지레 두에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5분 곤살루 하무스의 득점포가 터진 PSG는 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리아브르의 이사 수미레에게 헤더골을 내주며 추격당했다.

PSG는 후반 28분 이강인을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를 투입하며 뒷문 단속에 들어갔고, 결국 1골 차 승리를 지켜냈다. 연합뉴스

'올림픽 3관왕' 안산, 광주세계양궁선수권 출격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3위... 임시현·강채영과 동행

남자부는 '파리 멤버' 김우진·김제덕·이우석 1~3위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16년 만에 개최되는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며 올해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할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가 확정됐다.

안산은 지난 18일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2025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종합배점 13점(1차 7점·2차 6점)으로 3위에 올랐다.

1위는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한국체육대·14.6점), 2위는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강채영(현대모비스·14점)이 차지했다.

안산은 항저우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임시현, 도쿄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강채영과 선의의 경쟁을 이어간다.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단계부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산은 "광주 출신으로 양궁에

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반드시 당당한 주역으로 서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쁘다"며 "여러분의 기대가 큰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1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복귀한 안산은 "뜻하지 않는 부상으로 쉽지 않았던 국가대표를 잠시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도 취했고, 부상관리를 잘한 덕분에 좋은 컨디션으로 이번 선발전과 평가전을 잘 치렀다"며 "항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내달 열리는 양궁 월드컵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선수로서 후회 없는 경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자부에서는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금빛 도



16년 만에 개최되는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올해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할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가 확정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강채영, 안산, 임시현. 사진제공=광주시양궁협회

전을 펼쳤던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 '그 실력 그대로' 나란히 1~3위를 휩쓸며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

선발전 국가대표 선수들은 21일 인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인 팀워크 훈련에 돌입한다. 이들은 오는 5월 6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무대 행보에 나선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서울 꺾고 기분 좋은 사우디행

광주FC가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이로써 광주는 서울 전 공식 5연승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사우디아라비아(제다) 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

광주는 김경민이 골문을 지켰고 브루노와 변준수를 센터백으로 배치했다. 좌우 풀백으로 김진호와 조성권, 중앙 미드필더에는 이강현과 강희수, 공격에는 오후성, 가브리엘을 좌우 날개로 박태준과 헤이스를 투입으로 내세웠다.

이날 광주는 직전 강원FC와의 경기와 비교해 3명의 변화를 줬다. 안영규, 아시나, 최경록을 대신해 브루노, 이강현, 가브리엘을 선발 투입했다. 공격수 한 명을 줄이고 박태준을 전방으로 기용함으로써 중원 싸움 및 에너지 레벨에서 압도하고자 했다.

실제로 경기 초반 흐름은 광주가 주도했다. 박태준이 전방에 위치하기보다 중원으로 내려와 폭넓게 움직이며 황도윤, 이승모가 버티는 서울 미드필더진을 상대로 우세한 흐름을 만들었다. 이정호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이 빛을 봤다. 10분 서울이 광주의 골문을 위협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링가드가 시도한 프리킥이 수비진을 맞고 나오자, 김진수가 원발 잡아차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8분 변수가 발생했다. 이정호 감독은 근육 이상을 느낀 브루노가 경기를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안영규를 불렀고 동시에 U-22 자원이 강희수를 빼고 최경록을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그러자 잠시 흐름을 빼앗긴 광주가 다시금 힘



광주FC 오후성의 슈팅이 서울의 수비진을 맞고 나오자 박태준이 침착한 가슴 트래핑 후 통쾌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연 뒤 선수들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을 얻기 시작했다. 26분 타이탄 압박으로 루카스의 공을 가로챈 광주는 빠른 역습을 통해 서울 진영을 파고들었고 박태준이 기습적인 슈팅을 날렸으나 윗공을 때렸다. 38분 광주가 골과 다음 없는 찬스를 만들어냈다.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짧은 패스로 풀어나간 후 컷백 크로스를 시도하며 골문을 두드렸다. 강현우가 한 차례 막아낸 공을 김진호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포디시 강현우에게 막혔다. 이어진 코너킥 찬스에선 이강현

의 오른발 슈팅이 수비 블록에 맞고 굴절되며 아쉬움을 샀다.

내내 두드러진 광주는 42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서울 문전 앞에서 혼란한 틈을 타 헤이스가 기습적인 원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도움닫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으나 최근 물오른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는 헤이스에겐 충분했다.

후반 초반 흐름은 서울이 가져갔다. 최소 한 골 이상이 필요한 서울은 수비 라인을 상당 부분 끌어

원정 2-1로 승리...FC서울전 5연승

헤이스 선취골·박태준 결승골 합작

올려 공격적으로 임했다. 49분 문선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김우진이 원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문을 벗어났다. 52분, 54분 서울이 다시금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이승모, 루카스가 연달아 슈팅을 날렸으나 각각 김경민의 선방과 골대에 막혔다.

광주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아시나, 김한길을 넣고 가브리엘과 부상을 당한 안영규를 뺐다. 서울의 파상공세를 막아낸 광주는 64분 격차를 벌렸다. 오후성의 슈팅이 서울의 수비진을 맞고 나오자 박태준이 침착한 가슴 트래핑 후 통쾌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열었다.

서울은 마음이 급해지자 리스크를 감수하고 라인을 끌어올려 총공세를 퍼부었다. 여러 차례 광주의 골문을 위협했다. 그럼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던 광주는 78분 실점을 허용했다. 서울은 후반 깊숙한 지역에서 전방을 보고 롱 패스를 시도했다. 아잔이 공을 떨어뜨렸고 두스가 슈팅으로 연결했다. 광주 수비진은 1차 방어에 성공했으나 리바운드 볼이 링가드 쪽으로 흐르며 만회골이 나왔다.

동점을 원하는 서울은 공격 상황에서 수비수 아잔까지 최전방에 배치하며 적극적인 운영을 펼쳤으나 광주의 수비진은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 끝까지 팀 단위 압박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아시나, 오후성, 헤이스까지 내려와 수비진을 도우며 1점 차 승리에 성공했다. 서울을 제압하며 기분 좋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정후, 5경기 연속 안타...내셔널리그 타격 3위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정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방문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쳤다.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가 나왔다.

이정후는 8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 왼손 라이드 디드머스의 시속 152km 직구를 받아쳐 좌익수 앞으로 날아가는 안타를 때렸다.

16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부터 시작한 안타 행진이 5경기째 이어졌다.

이정후는 1회초 1사 1루 첫 타석에서 기교파 오른손 투수 카일 헨드릭스의 시속 124km 체인지업을 건드려 유격수 앞 땅볼에 그쳤다.

이정후는 3회에는 타석에 늦게 들어서서

피치 클록 위반으로 1스트라이크를 부여받은 뒤에 헨드릭스와 맞섰고 시속 130km 체인지업을 공략했으나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6회에는 디드머스의 시속 118km 커브를 받아쳐 좌익수 뜬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생산했다.

올 시즌 이정후는 20경기에 출전해 17경기에서 안타를 쳤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61에서 0.355(76타수 27안타)로 조금 떨어졌다.

브랜던 도너번(0.361·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피트 알론소(0.356·뉴욕 메츠)에 이은 내셔널리그 타격 3위다.

샌프란시스코는 에인절스를 3-2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1회초 맷 체프먼의 좌월 투런포로 선취점을 얻은 샌프란시스코는 3회 1사 2루에서 나온 윌리 아다메스의 우전 적시타로 추가점을 뽑았다.

에인절스는 4회와 6회에 터진 마이크 트라웃의 안타석 솔로포로 추격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발 다친 손흥민, 내일 노팅엄전 결장

발을 다친 손흥민(토트넘)이 3경기 연속 결장한다.

토트넘 핫스퍼를 지휘하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한동안 발 부상을 안고 뛰었다. 지금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며 "손흥민은 노팅엄전에 확실하게 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13일 올버햄프턴과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2라운드에서 이어 지난 18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8강 2차전에 잇달아 결장했다.

앞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버햄프턴전이 끝난 뒤 "손흥민이 발을 살짝 꿇었다. 조금 조심하려고 한다"고 부상 소식을 전했다.

손흥민은 이후 팀 훈련에 합류한 모습이 공개됐지만, 부상 관리 차원에서 프랑크푸르트와 UEL 8강 2차전 원정에서 나선 선수단에 합류하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국시간 22일 오전 4시 예정된 노팅엄과의 EPL 33라운드 홈 경기에도 손흥민이 뛰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선수 보호에 나섰다. 연합뉴스